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06)(12/23/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10 장 세상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달콤한 삶, 4-5 절

마 19:29 -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 7:14 -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4. 주께서 이렇게 베푸신 수많은 은택들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를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단 하루라도 주를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은 모든 섬김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의 미천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지칠 줄 모르고 늘 주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든지 주께서 공급해 주십시오.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멸시하는 것은 큰 영예이고 큰 영광입니다. 주를 섬기는 지극히 거룩한 일에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즐거움을 버린 사람들은 성령의 지극히 달콤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마 19:29),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영생의 좁은 길로 행하고(마 7:14), 온갖 세상 염려들을 벗어 버린 사람들은 심령의 큰 자유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진정으로 자유롭고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할 때, 사람은 천사들과 동등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악한 영들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기꺼이 받아들이고 간절히 원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사람에게 지극히 큰 복과 영원무궁토록 지속될 기쁨을 안겨 줍니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온전히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 아울러 우리가 받은 것을 똑같은 모습으로 돌려드릴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아낌 없이 완전히 부어드리며 헌신한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순전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한 때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세 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다(요 21 장).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 떼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며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신을 용서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에 잘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다양한 내용들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이다. 예수님은 막 12:28 이하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라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막 12:29-31 - 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신 6:4 -5)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레 19:18). 이 두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이면서 율법 전체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매우 단순하고도 명확한 뜻을 알게 하셨다. 미 6:8 -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나. 이 말씀은 구약의 황금율로 불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과 사람을 향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것이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도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 나는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오늘을 산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내가 받은 은혜를 곰곰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분쟁과 다툼과 깨어짐 속에 있는 교회들, 재정적 어려움, 핍박 등 각종 환난 중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주의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3. 기독교 선교가 금지되어 있고 박해가 계속되는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과 목회자들을 오늘도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님의 참된 능력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 321(351)(날 대속하신 예수께)